

또 수돗물 유충... 이번에도 강정정수장

서귀포 보목동 주택 포함 14곳서 의심 개체 발견 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중 송수관 파열 영향 추정 5일부터 강정 포함 도내 모든 정수장 실태 점검

‘강정 정수장 유충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제주지역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되며 또다시 수돗물 불신이 커지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 2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 옥실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 의심 개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도 상하수도본부에 접수했다. 이 주택에서 발견된 유충 의심 개체는 5마리로, 모두 죽어 있었다. 크기는 0.1mm 정도다.

신고를 한 주택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유충이 발견됐다. 도 상하수도본부가 이 주택에 대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과 여과시설, 소화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곳에서 유충 의심 개체가 잇따라 나왔다.

유충 의심 개체가 발견된 곳은 신고를 한 주택에 더해 강정 정수장 음수대 1곳, 여과시설 5곳, 소화전 7

등 모두 14곳이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충 의심 개체를 수거해 국립생물자원연구소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지는 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이물질이 걸러내는 유흥가압장의 정밀 여과장치가 작동을 멈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도중 송수관이 파열되며 이 과정에서 유흥가압장 정밀 여과장치로 이물질이 들어가 이 장치가 작동 멈춘 것 같다”며 “송수관이 정확히 언제 파열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정수장으로 부터 수돗물을 공급 받는 서귀포시 9개 동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생활용수로만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비용 정밀여과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기존 취수탑을 개량해 취수 시 한번 더 걸러주는 집수매거(하천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천상류에서부터 여과지까지 유충 발생 상황을 매일 관찰하고,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강정정수장을 포함한 도내 16곳 모든 정수장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노루야 안녕?” 지난달 28일 제주도 노루생태관찰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루 먹이주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새학년 개학, 도내 학교 81.1% 전교생 등교

초 15곳·중 10곳·고 11곳 등 총 36곳 % 등교 신입생 50명 이내 학교 '부모와 함께 입학식'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3월 2일부터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지난해에 비해 등교수업일이 확대되는 가운데 2일 새학년 개학일에는 도내 전체 191개 초·중·고등학교 중 81.1%에 해당하는 155개교 학생들이 전체 등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1일 기준 도내 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19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155개교(학생 4만1570명)가 전체등교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3분

의 2 등교가 원칙이지만 협의를 통해 전체 등교 조정이 가능한 도내 초등 600명~900명, 중·고등 500명~700명 미만 29개교(초 10, 중 10, 고 9) 중에서 2개교(중 1, 고 1)를 제외한 27개교도 전체 등교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함께 유치원 123곳(6230명)도 전체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밀집도 2/3가 유지되는 나머지 36개교(초 15, 중 10, 고 11)는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돼 일부 학생들은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개학’을 맞는다.

올해는 거리두기 입학식도 진행된다. 신입생 50명 이내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100명 이내 규모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신입생 5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없이 신입생과 학교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방과후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법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된다. 돌봄교실은 1-2학년은 정상 운영되며, 3학년은 원격수업에 따른 미등교시 긴급 돌봄이 시행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거리두기 2주 연장... 일부 업종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사우나·장례식장 등 완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 단 목욕탕 발한실 등 일부 업종에 대한선 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1.5단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4일 자정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학과 맞물려 불철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에 더해 본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풀릴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에서 백신 접종 시작 시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해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는 전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았던 도내 일부 다중이

용시설에 대한선 1일부터 전국과 동일한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했다.

도내 목욕장 업종은 1일부터 기존에 운영이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제한 인원은 1일 2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됐다. 단 테이블 띄우기·간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외 골프장도 정부의 1.5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 허용되며 라커룸과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편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선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영업 제한 시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첫 적발때부터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개인 폐지 수집자 등록제 시행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등 방지

서귀포시가 클린하우스 등의 넘침 현상을 방지하고 수집자들의 소득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폐지 수집자 읍면동 등록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사건

시는 폐지 수집자에게 신속한 폐지 수집 안내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폐지 수집함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 폐지 수집자 읍면동 등록제 시범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폐지가 클린하우스 등에 쌓이면 수집자에게 신속하게 읍면동에서 정보를 제공해 신속하게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행정에서 수거하던 일부 공동주택 66



개소에 대해서도 폐지 수집자가 직접 수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특징에 대해 “공공용 봉투를 사용 신청한 수집자에게 주당 봉투(50ℓ) 2개를 제공해 폐지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쓰레기(조각 쓰레기류, 포장 테이프류, 이물질 묻은 쓰레기류 등)를 담아 가연성으로 버릴 수 있어 폐지 수집함 관리는 물론 시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 운영

제주시는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업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이다. 신청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복지로)으로 가능하다. 이윤형기자

긴급지원주택 지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긴급지원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위기 가구에 주택 긴급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위함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제주개발공사 소유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7가구(제주시 3, 서귀포시 4 / 규모 원룸 또는 투룸)를 긴급 주거지원 취지에 맞게 거주기간 6개월로 한해 제공하고 많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2년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하면 된다.

고대모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 17대 회장



안 재 홍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17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갯머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전기범 외 조합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 17대 회장



안 재 홍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17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마초등학교 제4회 동창회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안 재 홍

제17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제주군4-H연합회장동우회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성 덕 근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형제일동